

중국경제 2005년 5대 사건과 2006년 5대 과제

2005. 12. 26

KOTRA 동북아팀

목 차

I . 2005년 중국경제 5대 사건	1
1. 2005년 중국경제 동향	1
2. 2005년 중국경제 5대 사건	4
(1) 섬유교역자유화	4
(2) 위안화 절상	7
(3) 광산사고의 대형화	11
(4) 중-칠레 FTA 체결	15
(5) 제11차 5개년 계획 건의안 통과	18
II . 2006년 중국경제 5대 과제	22
1. 2006년 중국경제 전망	22
2. 2006년 중국경제 5대 과제	25
(1) 최대과제 소비수요 확대	25
(2) 무역의존도를 축소	28
(3) 대외 경제협력 확대	30
(4) 三大격차 축소	32
(5) 자원이용효율 향상	34
부록. 2006년 중국 조세제도 변화	37

【요약】

<2005년 중국 경제 동향>

- 2005년 중국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성공적
 - GDP 9.4%, CPI 1.9%의 고성장, 저물가 기조 유지
 - 2002년 이후 GDP의 평균 변동 폭은 0.53%로 1981~1990년 3%, 1991~2001년 1.37% 대비 축소 경제주기 변동 폭 축소, 경제의 안정제도 진입 신호
 - 저축률과 외환보유고 증가로 인한 거시환경의 조절 능력 강화
 - 對칠레 FTA 등 대외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대외리스크 축소
-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 외에도 통상마찰, 산업재해 등 부정적인 사건들도 많이 발생
 - 통상마찰의 확대 현상 심화, 산업재해의 증가, 공급과잉 현상 심화, 무역의존도 급속한 확대 등 부정적인 영향들 심화

<2005년 중국 경제 5대사건>

- 섬유교역 자유화와 섬유 통상 마찰
 - WTO 섬유류협정(ATC)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로 섬유 수입쿼터 폐지
 - 하지만 2005년 중국의 섬유수출을 1,150억 달러로 예상할 경우

전년대비 성장률은 20%로 쿼터폐지 이전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통상마찰의 증가와 쿼터폐지 기대감으로 인한 과대투자가 주요 원인
- 유연한 통상정책과 섬유산업의 고도화가 정책과제로 부상

□ 위안화 환율 2.1% 평가절상

-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WTO 가입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마찰의 증가 가장 큰 원인
-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의 확대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위안화 추가절상 요구 심화
- 하지만 중국의 무역의존도 측면에서 볼 때, 중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단기간의 위안화 추가절상은 어려울 전망
- 추가절상 보다는 위안화의 시장에 대한 탄력성 확대에 치중

□ 광산 사고의 대형화

- 2005년 12월 7일 현재 10인 이상 탄광사고 기준 118건, 2700명 사망, 작년 동기 대비 사망자수 210명 증가
-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석탄 가격 상승이 직접 원인
-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힘든 상황에서 향후 중국 광

산의 안전사고도 지속될 전망

□ 2005년 11월18일 중-칠레 FTA 정식 체결

- 칠레산 구리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무관세 또는 2%로 낮게 부과되고 있으나 FTA 발효시 무관세 혜택으로 수입증가 전망
- 전자, 자동차, 의류 및 완구 등 자국산 공산품의 수출 확대
- 남미국가와 맺는 첫 번째 FTA로서 칠레를 통한 남미국가들과의 경제교류 관계가 더욱 확대 될 전망

□ “제 11차 5개년 規劃(이하 『11·5』 規劃)” 건의안 통과

- 『11·5』 規劃은 중국 4세대 지도부가 들어선 후 맞이하는 첫 번째 5개년 계획으로 현안 문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개혁의지가 강하게 반영

『11.5』 계획의 주요 내용

6대 필수 원칙	7대 목표	7대 주요임무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2000년 대비 2010년 1인당 GDP 2배 달성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경제성장 방식 전환	자원효율성 『10.5』 기간 대비 20% 향상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주적 혁신능력 제고	자주적 지식재산권, 유명브랜드 및 국제 경쟁력 보유한 우량기업 육성	지역간 협력 발전
都農간/지역간 협력 발전	개방형 경제 및 국제수지의 균형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건설
조화로운 사회 건설	의무교육의 보급 및 확립,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체계 완비	체제 개혁의 강화와 대외 개방 수준 제고
개혁개방의 강화	삶의 질 향상, 물가안정, 주거 등 환경조건 개선	‘科教興國 人才強國’ 전략의 강화
	민주법제 건설, 사회치안과 안전생산체계 구축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

- 『11·5』 기간 새로운 지도 이념과 목표로 경제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련 산업들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임

<2006년 중국 경제전망>

- 2006년에도 GDP 8.9%, CPI 1~2%의 고성장-저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투자증가율은 다소 감소한 19.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소비증가율은 12% 내에서 답보 상태일 것으로 전망
 - 대외무역은 무역의존도 감소, 내수화대라는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은 2005년 보다 감소한 12.6% 증가에 8,400억 달러, 수입은 16.2% 증가한 7,58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하지만 고성장 저물가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들도 산재
 - 디플레이션 가능성 증가, 경제성장의 투자의존도 심화, 국제수지의 불균형 심화, 소득격차의 확대 등의 과제 해결 필요

<2006년 중국경제 5대 과제>

- 소비수요 확대 성공 여부
 -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가능성 증가
 - 2001년 이후 급속한 투자증가가 주요 원인
 - 투자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확대, 공공 대형 프로젝트, 2007~2008년 각 급 정부기관 임기 만료

등의 요인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

- 결국 소비확대 정책 『11·5』 기간 최대 과제로 부각
-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 등 『11·5』 기간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이 실시 예정

□ 무역의존도 축소 가능 여부

- 급격한 무역의존도 증가로 인한 대외 리스크 적응력 약화
- 80%에 달하는 무역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유발
- 무역의존도 축소는 내수시장의 확대와 연계되어 있어 소비시장의 확대 여부가 무역의존도 축소의 관건

□ 대외경제협력 확대

- 1980년대 이래 중국의 대외통상정책은 WTO 가입 및 의무 이행에만 초점을 두었다가, 1997년 시작된 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
- 對미 수출의존도를 축소, 에너지 및 자원의 선점을 통한 경제성장 안정화, 아시아지역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외 경제 협력 더욱 강화 할 전망

□ 삼대격차의 해결

- 都農간,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 더욱 심화

- 도농간 소득격차는 1985년 1.7배에서 2004년 3.2배로 더욱 확대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三農문제가 빈곤경제학 핵심이라고 언급

○ 각종 재정정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실시 성공 여부 중요 과제로 부각

□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효율성 제고

○ 중국의 에너지 및 자원 이용의 낭비 갈수록 심각

- 2004년 기준 중국의 GDP 규모는 전 세계 GDP의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원 소모량은 12.1% 차지

○ 향후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효율성 제고가 『11.5』 기간 주요 과제로 부각

○ 『11.5』 기간 중국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은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 요인으로 다가올 전망

I . 2005년 중국 경제 5대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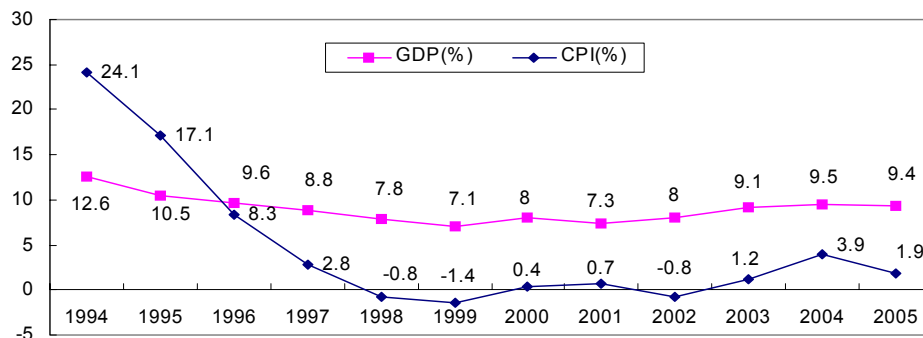
1. 2005년 중국 경제 동향

□ 2005년 중국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성공적

○ 고성장, 저물가 기조 유지

- 2005년 중국의 9.4%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2003년 9.5%, 2004년 9.5%¹⁾의 성장에 이어 9%대의 높은 성장을 보임
- 반면, 2005년 1~8월중 CPI는 1.9% 성장을 보여 2005년 전체 성장률은 2004년 3.9% 대비 약 2%p 감소할 전망

GDP, CPI 성장률 추이



자료원: 중국국가통계국

○ 경제주기 변동 폭 축소, 경제의 안정궤도 진입 신호

- 2002년 이후 경제성장률의 평균 변동 폭은 0.53%로 1981~1990년 3%, 1991~2001년 1.37% 대비 축소됨²⁾

1) 2005년 12월20일 리더수이(李德水) 국가통계국 국장은 제1차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2004년 GDP 규모가 현행 환율로 1조9317억 달러(15조9878억 위엔)에 달해 2004년 GDP 증가율을 지난 2월 발표치(13조6880억 위엔)에 비해 16.5%로 늘어났다고 밝힘, 하지만 조정 후 지표를 따를 경우 다른 지표들과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2004년 GDP 규모를 2월 발표 당시의 9.5%로 간주하여 작성함.
2) 1978년 개혁개방이후, 1981~1990년, 1991~2001년의 두 번의 경제주기를 경험하였고, 2002년부터 세 번째 경제주기의 상승단계에 돌입

- 또한, 최대치 2004년 9.5%와 최소치 2002년 8.0%로 주기폭 1.5%p로 1981~1990년 기간 중의 11.4%p, 1991~2001년 14.2% 대비 안정적인 성장 실현

○ 저축률과 외환보유고 증가로 인한 거시환경의 조절 능력 강화

- 2005년 1~8월 총 저축액은 27.51조 위엔인 반면 총 대출은 18.78조 위엔으로 저축이 8.73조 위엔 많음
- 또한 2005년 9월 현재 외환보유고는 7690.04억 달러 세계 2위의 외환보유고를 유지

○ 대외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대외리스크 축소

- 2005년 11월18일 칠레와의 FTA 체결을 통해 광산자원에 대한 공급지 확보, 수출대상국 확대 및 남미 지역에 대한 위상 강화
- 2005년 11월17일 한국으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아 시장경제지위 인정국가 총 42개국으로 증가

□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 외에도 통상마찰, 산업재해 등 부정적인 사건들도 많이 발생

○ 통상마찰의 확대 현상 심화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이후, 늘어나는 대외 수출과 더불어 주요 수출대상국들과의 통상마찰 심화
- 특히, 섬유교역자유화 이후 對미, 對EU와의 섬유분쟁이 끊이지 않았음

- 통상마찰의 확대는 7월21일 위안화의 절상의 형식으로 그 파장이 나타나고, 소폭의 절상폭으로 인한 추가절상 요구 또한 증가
- 9%대 경제성장의 이면 속에 날로 악화되어가는 산업재해의 증가
 - 171명의 목숨을 앗아간 黑龍江七台河 탄광사고, 송화강 벤젠 오염사고 등 대형 산업재해 증가
 - 특히, 탄광사고는 전력 생산의 석탄의존도 증가에 의해 증가추세에 있으며, 향후 당분간 탄광사고는 지속될 전망
- 투자증가로 인한 공급과잉 현상 심화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투자증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공급과잉과 제품의 가격 하락 현상 초래
 - 소비증가율이 동반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 증가
- 무역의존도³⁾의 급속한 확대
 - 2001년 WTO 가입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2005년 80%에 달할 전망
 - 과도한 무역의존도는 대외리스크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켜, 각종 통상마찰을 불러오는 주요인으로 부각
 - 또한, 무역의존도의 증가는 중국의 산업구조상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수급상황을 더욱 악화

3) 무역의존도=수출입총액/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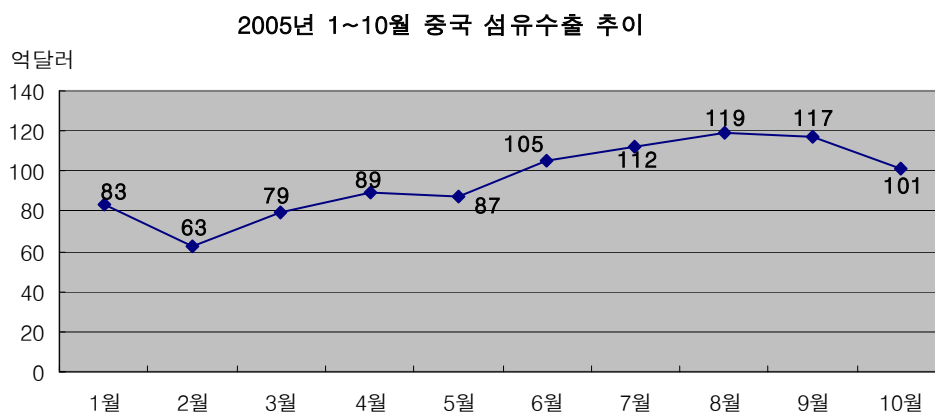
2. 2005년 중국경제 5대 사건

(1) 섬유교역 자유화와 섬유 통상 마찰

□ 섬유 수입쿼터 폐지로 중국이 최대 공급지로 부상⁴⁾

- WTO 섬유무역협정(ATC)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로 섬유 수입 쿼터 폐지
 - 1974년 다자간 섬유협정(MFA)을 통해 이루어진 섬유교역 수량 규제 체제가 30년 만에 폐지, WTO의 상품교역 규정으로 흡수
- 중국이 최대 공급지로 부상, 중남미와 아시아 경쟁력 상실
 - 쿼터 폐지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 등으로 중국산 의류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
 - 중남미와 아시아 생산기지는 미국이나 EU로부터 받던 특혜가 상실됨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이게 됨

□ 하지만 교역자유화 이후 중국의 섬유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



자료원: 중국섬유경제신식망(www.ctei.gov.cn)

4) KOTRA 발간자료 『교역자유화 시대의 섬유교역 환경』 (2005.5)에서 참조

- 2005년 1~10월 중국의 섬유수출은 955억 달러로 2005년 섬유수출은 1,15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2005년 중국의 섬유수출을 1,150억 달러로 예상할 경우 전년대비 성장률은 20%로 쿼터폐지 이전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중국 섬유수출 성장률 추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액(억 달러)	485	519	622	793	951	1,150
증가율(%)	20.3	7.02	29.9	27.5	19.2	20.0

자료원: 중국섬유경제신식망(www.ctei.gov.cn)

- 통상마찰의 증가와 쿼터폐지 기대감으로 인한 과대투자가 주요 원인

- 미국과 EU 등 주요 수입국과의 통상마찰 증가로 인해 수출 제약

2005년 중국 섬유교역 통상마찰 일지

날 짜	국가	내용
5월13일	미국	중국산 3개 의류제품 세이프가드 발동
5월18일	미국	중국산 4개 섬유 및 의류 품목 세이프가드 발동
6월10일	EU	섬유협정체결: 2005.6.11~2007년 말 對EU 섬유수출 연 8~12.5%로 제한
8월31일	미국	중국산 2개 품목에 세이프가드 발동
11월8일	미국	섬유협정체결: 2006.1.1~2008.12.31일 까지 총 34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 실시 ⁵⁾

자료원: KOTRA 상품산업정보에서 정리

- 쿼터폐지 기대감으로 인한 로컬기업들의 과대투자는 수출단가의 하락을 야기, 수출량은 증가하나 수출액은 감소하는 현상 초래

5) 핵심품목 14개: 2006년 5.5%, 2007년 7.8%, 2008년 10.3%
비핵심품목 20개: 2006년 10~12%, 2007년 12~15%, 2008년 16%

- 2004년 중국 섬유산업관련 고정자산투자 1189.1억 위엔 중 내자 73.2%, 외자 14.1%, 홍콩/마카오 12.5%⁶⁾ 투자
- 또한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 의거 향후 2016년까지 지속적인 통상마찰이 예상됨

□ 유연한 통상정책과 섬유산업의 고도화가 정책과제로 부상

- 중국 섬유산업은 고용유발 효과와 三農문제 해결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만큼 유연한 통상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육성정책이 예상
 - 중국방직공업협회 회장 杜鈺洲에 의하면 중국의 섬유산업 종사 인원은 1,900만 명으로 2004년 도시노동인구 2.6억 명 중 13.68%의 고용 효과 생산
 - 또한 중국 섬유산업의 중국산 면화의 년 평균 사용량은 720만 톤으로 1억 농민의 생계 해결
 - 실업문제와 三農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섬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더욱 유연한 통상정책이 필요
-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섬유산업의 고도화 필요성 대두
 - 투자억제, 기술개발 투자, 수출제품의 브랜드화 등 섬유산업 고도화 전략이 핵심과제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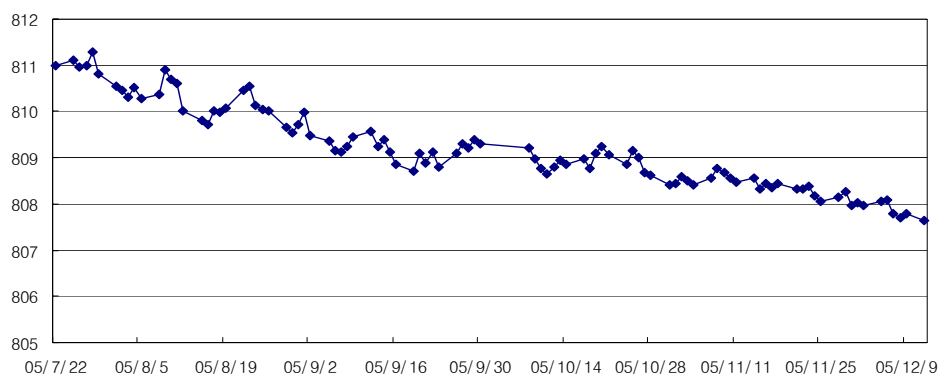
6) 中國紡織經濟信息網(www.ctei.gov.cn)에서 참조

(2) 위안화 평가절상

□ 위안화 환율 2.1% 절상

- 2005년 7월21일 달러대 위안화 환율을 1:8.28 위안에서 1:8.11 위안으로 절상
 - 중국인민은행은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달러화 페그제를 폐지하고 외환 바스켓에 기반한 변동환율제를 도입한다고 발표
 -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8월 10일 미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를 외환 바스켓의 4대 주요 통화로 결정
 - 달러 대비 하루에 0.3%까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는 한편, 여타 주요 교역국 화폐들에 대해서는 상하 1.5% 까지 변동 가능
- 7월21일 변동환율제 도입이후 12월12일까지 1:8.07원까지 하락

조정이후 환율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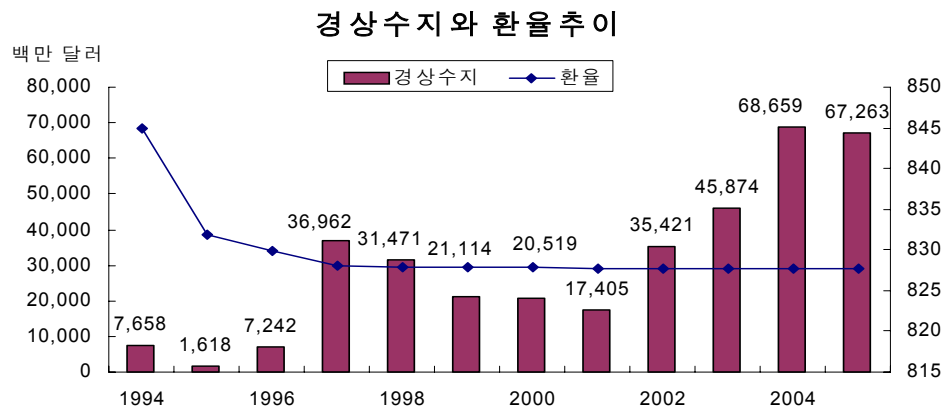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 7월21일~12월12일까지 위안화의 對달러화 일일 평균 변동폭은 0.02%로 변동폭 0.3%보다 훨씬 낮은 수준 유지
-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WTO 가입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마찰의 증가 가장 큰 원인

- 상무부 공평무역국 국장 왕쓰춘(王世春)에 의하면 2005년 8월 현재 242개 섬유류의 특별 제한조치 외, 13개 국가와 지역에서 총 44건, 15.4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구제조사 받음

□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의 확대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위안화 추가절상 요구 심화

○ 환율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경상수지의 흑자폭 지속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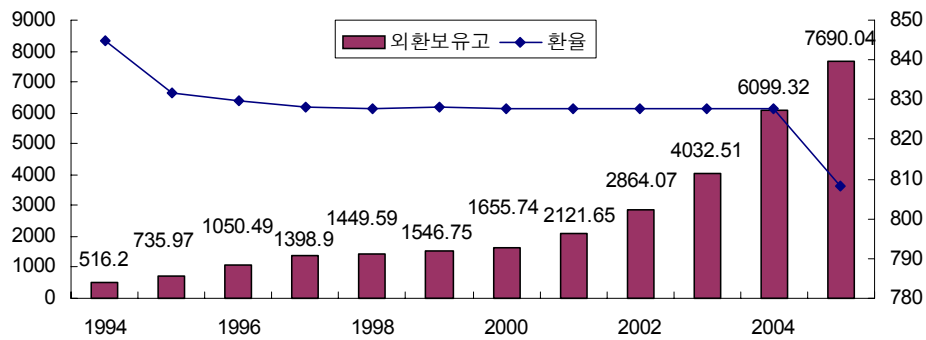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 WTO 가입이후 중국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 대폭 증가
- 2005년 1~11월 중국의 수출은 6865.5억 달러, 수입은 5957.3억 달러로 908.2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332.7% 증가
- 외국인 직접투자에서는 위안화 평가절상의 영향이 다소 나타남
- 2005 1~10월 외국인직접투자는 484.11억 달러로(실행액 기준) 전년 동기대비 2.12% 감소
- 하지만 외환보유고는 위안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의 확대로 말미암아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임

- 2005년 9월30일 현재 위안화의 對달러 환율 1:8.08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은 7690.04억 달러로 7월말 대비 4.72% 증가

인민폐 환율 및 외환보유고 추이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 이러한 경상수지의 확대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추가절상 요구 심화

주요기관 추가절상 예상치

기관	추가 절상 예상치
스위스 제1 보스톤	12개월 이내 4~7% 절상
골드만삭스	12개월 이내 6% 절상
시티뱅크	2005년 내 3% 절상
모건스탠리	2005년 내 총 7% 절상, 2006년말까지 15% 절상

자료원: KOTRA 경제무역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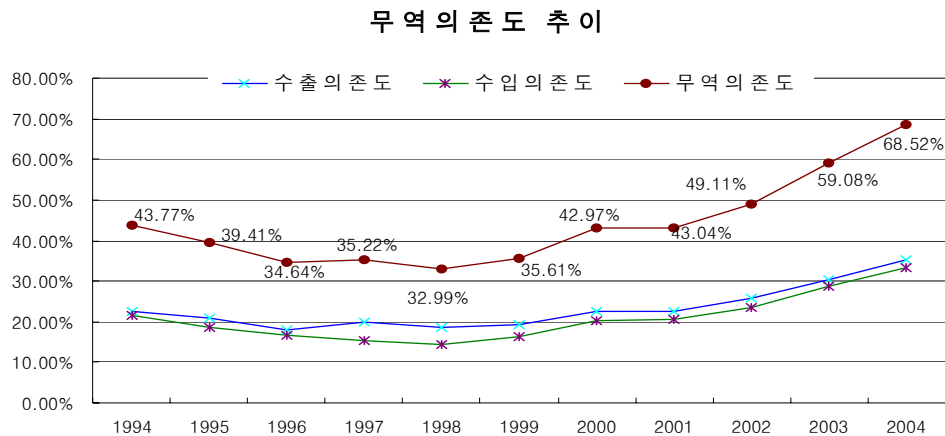
- 스위스 제1보스톤 향후 12개월 이내 4~7%의 평가절상 전망, 골드만삭스 역시 12개월내 6%폭의 절상 가능성을 발표
- 시티뱅크 연내 3% 추가절상 전망, 모건스탠리에서는 7월 21일 2.1%의 평가절상을 포함 올해 안에 총 7%, 내년 말까지 총 15%의 절상 전망
- 위안화의 2.1%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의 양당 의원들은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하다고 주장

□ 하지만 중국의 무역의존도 측면에서 볼 때, 단기간의 위안화 추가절상은 어려울 전망

○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2004년 기준 68.52%이며, 2005년도에는 80%에 달할 전망

- 2001년 WTO 가입이후, 무역의존도 연평균 8.49% 증가 추세

- 중국의 가공무역 이윤이 평균 5% 인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평가절상은 어려울 전망⁸⁾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 대외무역이 갖고 있는 고용창출 효과는 위안화 추가절상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임

- 2004년 섬유산업 기준 위안화의 2% 절상은 38만 명의 일자리 상실 효과를 불러옴

□ 추가절상 보다는 위안화의 시장에 대한 탄력성 확대에 치중

○ 위안화 절상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급격한 환율 절상이 아닌 위안화의 외환시장에 대한 탄력성 확대 정책이 실시될 전망

7) KOTRA 경제무역정보 2005년 11월18일에서 참고

8) 2004년 중국의 가공무역은 3279.9 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55.3% 공헌

인민폐 절상의 실업 발생 효과 추정:

2004년 중국 섬유산업 기준



- 2005년 6월26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능동성', '통제가능성', '점진성'의 3원칙으로 환율개혁 의지 표명
- 2005년 7월26일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상 계획은 없으며, 환율 개혁은 위안화 환율의 점진적 조정이 목표가 아닌 환율 메커니즘의 점진적 개혁이 목표라고 표명

○ 위안화의 외환시장에 대한 유연성 확대 정책 실시

- 2005년 5월 도입한 달러에 대한 Market Maker⁹⁾ 제도의 확대 및 안정화, 위안화 파생상품의 개발을 통한 위안화의 유연성 확대
-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의 기대감 팽창
 - 2005년 9월23일 달러를 제외한 엔화, 홍콩 달러화 및 유로화 환율의 밴드폭을 기존 1.5%에서 3%로 확대

(3) 광산 사고의 대형화

□ 광산사고의 대형화 추세

- 2005년 12월 7일 현재 10인 이상 탄광사고 기준 118건, 2700명 사망, 작년 동기 대비 사망자수 210명 증가

9) 외환시장에서 가격을 스스로 설정하고 고시하여 외환거래에 응하는 대규모은행을 일컬으며, 현재 Deutsche Bank, HSBC, ABN AMRO Bank, Royal Bank of Scotland, citibank, Bank of Montreal, ING Bank등 7개의 외자은행과 中國銀行, 中信實業銀行 2개의 중국은행이 참여

- 30인 이상 사고는 13건 966명 사망, 작년 동기 대비 139명 증가

2005년 주요 탄광사고 일지

날짜	장소	사망인원	날짜	장소	사망인원
2/14	遼寧省阜新市	213명 사망/1명 실종	7/11	新疆阜康	83명 사망
3/9	山西省交城	28명 사망/69명 실종	8/7	廣東省梅州市	123명 사망
3/19	山西省翔州	72명 사망	11/27	黑龍江七台河	171명 사망
4/24	吉林省吉林市	30명 실종	12/3	河南省新安縣	42명 사망
5/19	河北省承德市	45명, 5명 실종	12/7	河北省唐山	54명 사망/22명 실종
6/22	山西省繁峙縣	37명 사망	기타	30인 이하 사고	1699명 사망
7/2	山西省寧武縣	36명	계	10인 이상 사고	2700명

자료원: 博迅新聞網(www.boxun.com) 및 중국 주요 신문 자료 정리

-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 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0~2004년 년 평균 광산사고 사망자수는 6,380 명으로 하루 평균 15명 사망¹⁰⁾

- 전 세계 석탄 생산량 35%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광산사고 사망자수의 80%에 달함
- 생산량 100톤당 사망자수 미국의 100배, 남아프리카의 30배, 인도의 1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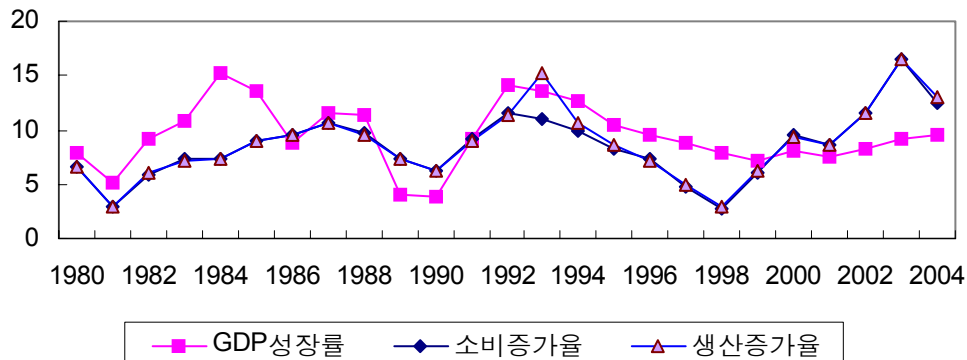
□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석탄 가격 상승이 직접 원인

-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전력의 수급현황 악화
- 2000년 이후, 전력 소비와 생산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앞서고 있어 성장을 위한 자원 소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2004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9.5%인 반면, 전력 소비량은 21,735 억 KW로 전년 동기대비 12.44% 증가

10) 大紀元(www.dajiyuan.com)에서 참고

- 또한, 생산량은 21,870 억 KW로 전년 동기대비 12.98% 증가 전력 수급의 긴장상태 지속

중국 GDP, 전력 소비 및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원: 중국국가전력신식망(www.sp.com.cn)

- 수급 긴장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생산의 80%를 화력에 의지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석탄 공급가격 상승 초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

(단위: 억 KW, %)

	수력	화력	원자력	전체
2005(1~10월)	3089.85(15.64)	16109.76(81.56)	448.65(2.27)	19750.86

자료원: 중국국가전력신식망(www.sp.com.cn)

- 2005년 1~10월 중 화력 발전 16,109 억 KW로 전체 전력 생산량 19,790억 KW에서 81.56% 생산
- 2004년 석탄가격 톤당 1,000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
- 결국, 이러한 전력 공급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석탄 공급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 광산의 사고발생 위험 증가

- 중국 국가 안전생산 감독 관리국 의하면 2003년 전체 생산량 17.28억 톤 중 안전설비를 갖춘 탄광 2090 곳의 생산량은 11억 톤으로 나머지 6.28억 톤은 안전설비 미비 탄광 생산

□ 2006년에도 중국의 전력난은 지속될 전망

- GDP 성장률 8%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전력난은 지속될 전망
- 2006년 중국 GDP 성장률을 8.9% 예상시 전력소비량은 13.18% 증가할 것으로 전망¹¹⁾
- 공업투자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2차 산업과 주민생활용 전력 수급 더욱 악화될 전망
- 2005년 1~9월 2차 산업과 주민생활용 전력 전년동기대비 각각 14.19%, 16.74% 증가
-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중점으로 하는 '혼합에너지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나 단기간 실효를 보기 어려움
- 2020년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의 비중은 4%와 5%에 불과할 전망¹²⁾
- 결국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힘든 상황에서 향후 중국 광산의 안전사고도 지속될 전망

11) 2004년 전력 소비탄성계수(전력소비증가율/GDP증가율) 1.53으로 계산. 2005년 중국통계연감 참조

12) KOTRA 경제무역 정보 참고

(4) 중-칠레 FTA 체결¹³⁾

□ 2005년 11월18일 중-칠레 FTA 정식 체결

중-칠레 FTA 협상 일지

회수	기간	장소	회의내용
1차	2005.1.25~27	중국/베이징	협상추진 일정 및 프레임 확정
2차	2005.4.27~29	칠레/산티아고	시장개방, 세관, 동식물검역 및 관련법률 논의
3차	2005.6.28~30	중국/우시	5개 실무팀 구성 시장진입, 원산지 규정 및 관련절차, 기술무역장벽, 동식물검역, 무역구제 및 법률, 발전영역 협력 및 교류방안 등 논의
4차	2005.9.12~16	칠레/산티아고	동물검역,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합의도출, 시장개방,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시스템 등에 대한 합의 진전
5차	2005.10.24~28	중국/베이징	중-칠레 FTA 상품 무역협정 합의 도출

자료원: KOTRA 발간자료 『중-칠레 FTA 체결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2002년 7월 중국이 칠레측에 양국 FTA 체결 제안 후 3년 4개월 만에 정식 체결
 - 2002년 7월 중국이 칠레에 양국 FTA 체결 제안
 - 2004년 4월 FTA 체결타당성 조사 개시
 - 2004년 9월 산티아고 APEC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개시 선언
 - 총 5차의 협상과정을 통해 2005년 11월1일 부산 APEC 정상회담에서 FTA 정식 체결
- 2006년 7월1일부터 공식발효 예정

13) KOTRA 발간자료 『중-칠레 FTA 체결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참조

□ 양국간 교역 크게 증가할 전망

○ 칠레의 對중국 수출증가 예상품목

- 식품, 음료, 주류, 화학원료, 과일, 생선, 낙농제품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상기 제품의 경우 현재 15~28%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칠레 외무부와 칠레 중앙은행은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농산물, 식품 및 음료 부문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중국의 對칠레 수출증가 예상품목

- 섬유, 신발, 피혁제품, 가전제품,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 對칠레 주력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인한 시장점유율 확대 예상
- FTA 발효시 중국산 섬유, 신발류는 6~8%, 금속, 기계류는 9~11%, 신발류는 6% 정도 수출액이 증가할 전망
- 칠레 신발·피혁 산업협회(Fedeccal)에서는 2004년 중국산 신발의 수입량은 4,600만 켈레인 반면, 칠레산은 1,200만 켈레로 FTA 체결시 칠레 신발 산업 6~10%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칠레의 對중국 수입관세는 모든 품목에 6%를 적용하고 있으며, FTA 발효시 對중국 수입품목의 50% 관세철폐 예상

□ 중-칠레 FTA 체결의 중국에 대한 의의

○ 자원분야에 대한 양국간 교류 증가

- 칠레산 구리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무관세 또는 2%로 낮게 부과되고 있으나 FTA 발효시 무관세 혜택으로 수입증가 전망
- 국제 원자재 공급원을 확보키 위해 對칠레 투자를 본격 추진 예정이어서 광산부문개발에 대규모 자금 투입 전망
- 광산자원, 특히 구리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¹⁴⁾

○ 전자, 자동차, 의류 및 완구 등 자국산 공산품의 수출 확대

- 하이얼, 렌샹 등 중국의 대형 가전업체들의 중저가 가전제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 중국의 저가 자동차와 부품의 수출이 늘어날 전망
- 섬유교역자유화와 맞물려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의류 및 완구 제품의 수출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남미 시장과의 경제교류 확대

- 남미국가와 맺는 첫 번째 FTA로서 칠레를 통한 남미국가들과의 경제교류 관계가 더욱 확대 될 전망
- 브라질, 아리헨티나 대비 높은 시장경쟁력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¹⁵⁾에 대한 수출 확대 될 전망

14) 동 매장량 전 세계 35%를 차지하며, 현재 최대 동 생산국이자 수출국. 그 외, 몰리브덴은 세계 2위, 리튬은 2위, 붕사는 5위, 은은 7위, 금은 9위의 매장량을 보유

15)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며 칠레, 볼리비아가 자유무역지역 수준에서 준 회원국으로 참가

(5) 제11차 5개년 계획 건의안 통과

□ 제 11차 5개년 계획(이하 『11·5』 계획) 건의안 통과

- 2005년 10월8일에서 11일까지 중국 공산당 제 16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북경에서 개최
- 중앙위원 191명, 후보위원 150명이 참석,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제시한 『11·5』 계획 건의안 통과

□ 『11·5』 계획은 중국 4세대 지도부가 들어선 후 맞이하는 첫 번째 5개년 계획으로 현안 문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개혁의지가 강하게 반영

- ‘計劃’에서 ‘規劃’으로 명칭 변화, ‘과학발전관’의 지도이념, ‘이인위본(以人爲本)’의 발전관, 정부의 역할 전환 강조, ‘공동부유(共同富裕)’의 발전관, 지역 균형 발전 등에서 특징이 두드러짐

『11·5』 계획의 특징 및 의미

특징	의미
‘計劃’에서 ‘規劃’으로 명칭 변화	▪ 시장역할 강화 ▪ 정부의 거시조절 능력 강화 ▪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책 강화
‘과학발전관’ 지도이념 제시	▪ 중국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지도부의 의기의식 표명 ▪ 균형과 분배의 정책 강화
‘以人爲本’의 발전관 제시	▪ ‘과학발전관’의 궁극적 가치로서 역할 ▪ 소득분배, 교육, 사회보장제도 강화
정부의 역할 전환 강조	▪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역할 강화 ▪ 정경분리를 통한 시장의 간섭 축소
‘共同富裕’의 발전관 제시	▪ ‘先富論’의 개념 사라지고 ‘共同富裕’의 발전관 제시 ▪ ‘삼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강화
지역 균형발전 전략 제시	▪ 西部대개발, 東北진흥, 中部굴기, 東部우선발전 전략 제시 ▪ 지역의 특색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발전 전략 제시

- 『10.5』기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 『11.5』기간 중의 대내외 환경 예측, 6대 필수원칙, 7대 목표, 7대 주요임무 및 당과 정부의 역할 등 총 6개 방면에 걸쳐 건의 案 제시함¹⁶⁾

『11.5』계획의 주요 내용

6대 필수 원칙	7대 목표	7대 주요임무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2000년 대비 2010년 1인당 GDP 2배 달성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경제성장 방식 전환	자원효율성 『10.5』기간 대비 20% 향상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주적 혁신능력 제고	자주적 지식재산권, 유명브랜드 및 국제 경쟁력 보유한 우량기업 육성	지역간 협력 발전
도농간/지역간 협력 발전	개방형 경제 및 국제수지의 균형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건설
조화로운 사회 건설	의무교육의 보급 및 확립,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체계 완비	체제 개혁의 강화와 대외 개방 수준 제고
개혁개방의 강화	삶의 질 향상, 물가안정, 주거 등 환경조건 개선	‘科教興國 人才強國’ 전략의 강화
	민주법제 건설, 사회치안과 안전생산체계 구축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

- 『11·5』기간 새로운 지도 이념과 목표로 경제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들의 변화를 불러올 전망

○ 저소득층 소득증가

-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가 정책이 예상되는 바, 내수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
- 또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바, 수출과 투자견인형 성장에서 소비견인형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실시될 전망
- 저소득층의 소득증가 관련 정책은 중국의 내수시장을 확대 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재 산업이 크게 발전할 전망

16)인민출판사에서 발간한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介午年規劃的建議” 참조

○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

-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바, 설비, 에너지 및 환경 산업의 장려 정책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에너지 산업의 경우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 개발 관련 제품 및 산업이 부상할 것임
- 중복투자가 심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高소모/高오염 산업에 대한 제제 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
-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수도/전기 등 각종 자원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바, 低소모/高효율의 기계설비 제품 및 산업이 부상할 전망이다

○ 자체기술 개발 및 해외 선진 기술의 유입

- 자주혁신전략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관련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기업자체의 기술 개발 능력 강화와 동시에 해외 선진 기술의 흡수 능력과 관련된 정책의 실시도 예상
- 해외 기업의 기술이전을 보다 용이하게 습득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M&A가 더욱 증가할 전망
- 단기간 기술의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 장비 및 부품 등 수입대체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이 향후 투자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

○ 신농촌 건설

-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대한 강조는 농촌에 대한 설비투자를 동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산업의 발전이 예상

- 농촌 건설은 과거 단편적인 정책에 비해 종합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도로/수도/전기/방송/통신 등의 기초설비 건설과, 주거, 교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임
- 농촌에 대한 보조금 지원/세제 지원 등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예상되는 바, 농민소득의 향상 예상
- 도시화 건설 전략은 중서부 중소도시 및 향진에 대한 기초설비 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결과적으로 신농촌 건설은 농촌 소비시장의 확대, 기초설비투자의 확대 등으로 인해 소비재 산업과 설비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II. 2006년 중국경제 5대 과제

1. 2006년 중국 경제 전망

□ 고성장-저물가 기조 유지¹⁷⁾

- 2005년 GDP 9.4%, CPI 1.9%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6년에도 GDP 8.9%, CPI 1~2%의 고성장-저물가 기조가 유지 될 것으로 전망¹⁸⁾
- 투자증가율은 다소 감소한 19.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소비증가율은 12% 대에서 답보 상태일 것으로 전망되어 디플레이션의 가능성 증가할 전망
- 대외무역은 무역의존도 감소, 내수확대라는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은 2005년 보다 감소한 12.6% 증가에 8,400억 달러, 수입은 16.2% 증가한 7,580억 달러에 달할 전망

중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지표	2005년	2006년
GDP 성장률	9.4	8.9
고정자산 명목 성장률	22.9	19.7
소비품 판매액 성장률	12.9	12
CPI 성장률	1.9	1~2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성장률	8.6	7.8
농촌주민 실질 소득 성장률	5.7	5.2
수입	6520억 달러	7580억 달러
수입성장률	16.1	16.2
수출	7460억 달러	8400억 달러
수출성장률	25.7	12.6

자료원: 중국사회과학원 추정치

17) 각 지표별 통계치는 중국사회과학원 추정치 참조

18) P12 "GDP, CPI 성장률 추이" 도표 참조 바람

□ 하지만 고성장 저물가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들도 산재

○ 디플레이션 가능성 증가

- 투자증가로 인한 공급과잉 현상이 출현하고 있는 반면, 소비 증가율은 답보 상태

- 2005년 투자증가율 22.9%, 소비증가율 12.9%
- 투자와 소비와 비중 2000년 36:64에서 2004년 44:56으로 축소

- 공급과잉,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디플레이션 가능성 증가

○ 심화되어 가는 공급과잉 현상

- 철강, 산화알루미늄, 시멘트 일부 산업 투자과잉과 재고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현상 대두

○ 경제성장의 투자의존도 심화

- 2005년 고정자산투자 투자액은 8조 6,1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 최근 몇 년간 투자의 GDP 공헌도가 50% 이상인 상황에서 2005년에는 55% 이상 될 전망

○ 국제수지의 불균형 심화

- 2005년 1~6월 국제수지 흑자는 1,05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15% 성장,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각각 672.6억 달러, 38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01%성장, 43% 감소

-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중국 주요국과의 각종 무역마찰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
- 또한, 국제수지 불균형은 주요 교역 국가들의 위안화의 절상 요구의 이론적 근거

○ 소득격차의 확대

- 都農간,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심화로 중국 경제의 안정 발전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부각

2. 2006년 중국 경제 5대 과제

(1) 소비수요 확대 성공 여부

□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가능성 증가

○ 2001년 이후 급속한 투자증가가 주요 원인

- 고정자산 투자가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21.62%, 21.34%로 2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공업부문의 투자가 2003년 39.1%, 2004년 36.3%의 성장하여 고정자산 투자 성장을 주도
-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의 경우는 10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임

2003, 2004년 투자 집중 산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자동차	섬유
2003년	32.3	86.6	43.3	53.5	30.3
2004년	96.6	92.9	121.9	87.2	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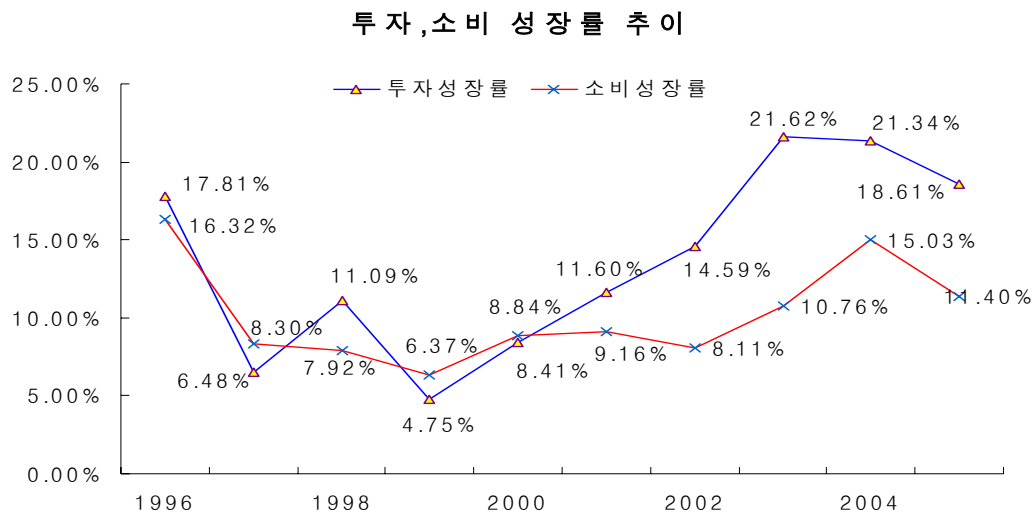
자료원: 2003년, 2004년 중국 통계연감

- 공업부문의 과도한 투자한 투자로 인한 공급과잉 현상이 갈수록 심화
- 중국 상무부의 보고서 의하면 600개 소비재와 300개 중간재 가운데 26.7% 만이 수급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72.3%는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¹⁹⁾

19) 中國金融網(www.zgjr.com) 2005년10월12일에서 참조

○ 반면 소비 증가는 담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소비는 2002년 8.11%, 2003년 10.76%, 2004년 15.4% 성장률을 보였고 2005년에는 12.90%에 머무를 전망



자료원: 중국국가통계국

○ 투자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

- 우선 2006년부터 시작되는 『11·5』 계획에서 성장방식의 전환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는바 하이테크 산업과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
- 또한,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해엑스포,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행사와 관련된 대형 공공 프로젝트에 투자가 늘어날 전망
- 2007~2008년 각 급 정부기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GDP 성장을 위한 투자가 중복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소비수요 확대가 대안

○ 소비확대 정책 『11·5』 기간 최대 과제로 부각

- 2005년 10월8일에서 11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제16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5』 기간 경제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변화 제시
- 2005년 11월29~12월1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국무원 중앙경제회의에서 『11·5』 기간 내수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一穩一擴²⁰⁾” 의 수요관리 정책을 2006년 기본 정책방향으로 제시

○ 『11·5』 기간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이 실시 예정

- 개인소득세 조정, 농업세 폐지, 농업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증가 정책과 더불어 증치세 전환을 통한 내자기업의 투자수요를 유인 정책
-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의 저축심리 완화와 소비 유인 정책도 강화
- 또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 이들 지역의 소비가 다소 증가할 전망

20) 一穩: 투자의 적절한 억제를 통한 공급과잉 문제 해결, 一擴: 소비수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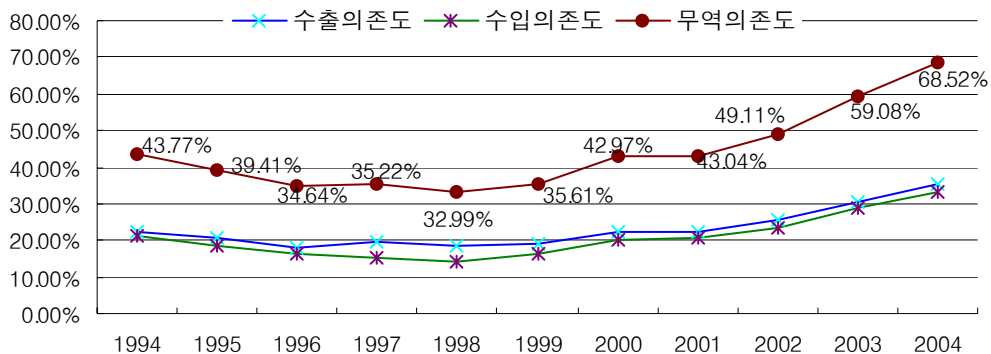
(2) 무역의존도축소 가능 여부

□ 2001년 이후 무역의존도 급격한 증가

○ 2001년 WTO 가입이후 중국의 무역의존도 급격히 증가

-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2001년 43.04%, 2002년 49.11%, 2003년 59.08%, 2004년 68.52%로 급격히 증가
- 2005년 중국의 대외무역은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으로 무역의존도가 80%에 달할 전망

무역의존도 추이



자료원: 중국국가통계국

□ 급격한 무역의존도 증가로 인한 대외 리스크 적응력 약화

○ 각종 통상마찰에 대한 적응력 약화

- 섬유교역 자유화 이후, 미국과 EU로부터 수입제한, 반덤핑 조사 등 각종 통상마찰에 부딪침
- 7월 21일 위안화 절상을 단행하였으나, 추가절상 압력이 확대되기 시작

□ 에너지,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의 주요 원인

- 80%에 달하는 무역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유발
 - 2004년의 경우 각종 에너지에 대한 평균 소비증가율은 16.18%

2004년 중국의 에너지, 원자재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	원자재	소비량	증가율(%)
석탄	18.7억 톤	14.4	철강재	3.1억 톤	15.1
원유	2.9억 톤	16.8	알루미늄	1,284만 톤	9.7
천연가스	415억 m³	18.5	시멘트	9.6억 톤	12.4
수력발전	3,280억 kwh	15.6			
원자력발전	501억 kwh	15.6			

자료원: 중국통계국, KOTRA 경제무역정보

- 지나친 무역의존도는 중국의 에너지난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

□ 내수시장 확대가 무역의존도 축소의 최대 방안

-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외부수요를 내부수요 확대로 전환하는 방법이 관건
 - 2005년 2월 기준 가공무역의 비중이 54.2%를 넘는 상황에서 무역의존도 축소 정책으로 인한 외자 감소, 실업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필요
 - 또한, 내수로 전환되는 상품들에 대한 구매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민의 소득 증가 방안 필요
- 무역의존도 축소는 내수시장의 확대와 연계되어 있어 소비시장의 확대 여부가 무역의존도 축소의 관건

(3) 대외경제협력 확대

□ 중국의 FTA 추진 현황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원인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홍콩(2003. 6 체결) 마카오(2003. 10 체결) ASEAN(2004. 10 상품분야 타결, 2005. 7 발효) 칠레(2005. 11.18 체결, 2006.7.1일 발효)	뉴질랜드(2004. 12 개시) 파키스탄(2005. 1 개시) GCC ²¹⁾ (2005. 4 개시) 호주(2005. 5 개시)	인도, 일본, MERCOSUR 한·중·일(민간 공동연구) 한국(민간 공동연구) 멕시코, 아이슬란드 태국, 남아공
추진 원인		
- 아시아 지역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FTA 추진 - 경제적·비경제적 요인 외에 국제정치적·안보적 측면 중시하는 FTA 전략 추구(ASEAN) - 에너지 및 자원의 선점을 우선시하는 FTA 전략 추구(GCC, 칠레, 뉴질랜드 등)		

자료원: KOTRA 발간자료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에서 참조

○ 지역경제 협력 필요성 절감

- 1980년대 이래 중국의 대외통상정책은 WTO 가입 및 의무 이행에만 초점을 두었다가, 1997년 시작된 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
- WTO 가입(2001년) 이후 무역자유화에 대한 자신감 확보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 홍콩, 마카오와 경제무역관계 강화협정(CEPA) 체결 외에, ASEAN과는 2004년 10월, 칠레와는 2005년 11월 FTA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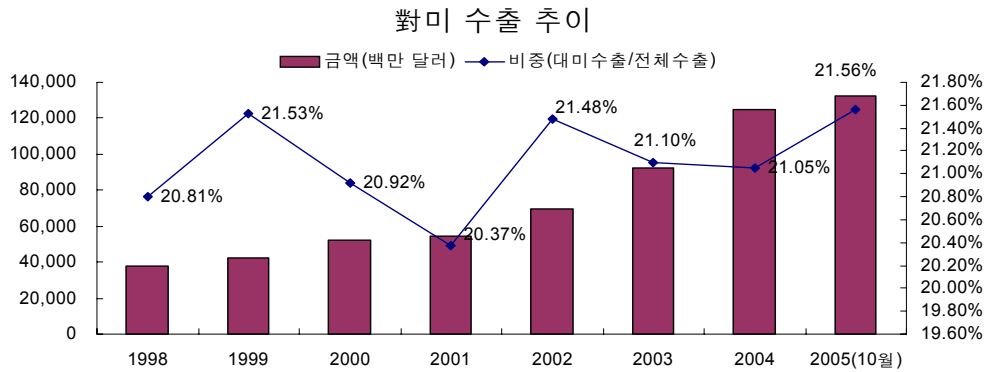
○ 또한 뉴질랜드, 파키스탄, GCC, 호주와는 FTA협상 진행 중

21)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 아라비아 반도와 인근 도서지역의 여섯 개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레이트로 구성된 정치·경제 협력체로, 이란·이라크 전쟁기간인 1981년 5월 역내 안전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결성

□ 중국의 FTA 추진 원인

○ FTA를 통한 對미 수출의존도를 축소

- ASEAN, 남미 등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지나친 대미 수출 의존도 축소
- 對미 수출의존도 축소를 통한 최대 통상마찰 국가인 미국과의 통상마찰 축소 도모



자료원: 무역협회 DB 참고

○ 에너지 및 자원의 선점을 통한 경제성장 안정화 도모

- 날로 악화되어 가는 에너지, 자원 난 해결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주요 과제로 부상
- 전 세계 동 매장량의 35%를 차지하는 칠레와의 FTA 체결을 통한 동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가능
- 또한 GCC의 석유자원, 호주의 석탄, 철광석 자원 등도 중국의 이들 국가와의 FTA 추진의 주원인

○ 아시아지역 역내 주도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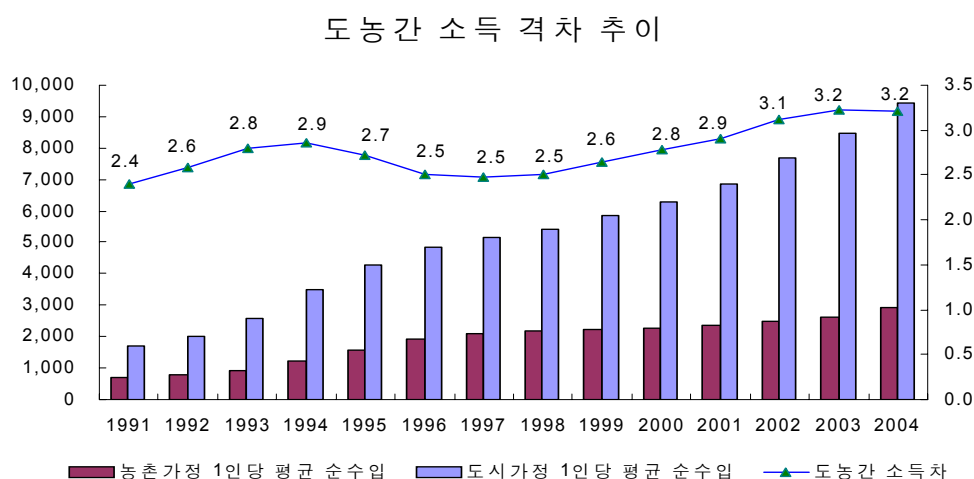
-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와 더불어 날로 구체화 되어가는 아시아 경제블록화 논의에 있어 주도권 확보 가능
- EU과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한 동북아 지역의 FTA 주도권 확보를 통한 동북아 맹주 국가의 역할 가능
- ASEAN과의 FTA 체결로 인해 아시아지역 역내 FTA 체결 논의 가속화

(4) 三大격차²²⁾의 해결

□ 三大격차 지속적인 확대 추세

○ 都農간,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 都農간 소득격차는 1985년 1.7배에서 2004년 3.2배로 더욱 확대



자료원: 2005년 중국 통계연감

22)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소득 격차

- 중국 국무원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주민의 복리를 수입으로 환산할 경우 도농간 소득격차는 6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과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1인당 GDP 기준으로 최대지역과 최소지역의 격차는 12배 이상으로 나타남
- 2003년 소득 상위 20% 가정의 1인 평균 가처분 소득은 17,472위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가처분소득은 3,295 위엔으로 전년동기대비 8.7% 증가의 불과

□ 빈곤경제학의 부상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三農문제가 빈곤경제학 핵심이라고 언급
- 린이푸(林毅夫), 빈곤경제학의 측면에서 『11·5』기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
 -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주원인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적을뿐 아니라, 고생해서 벌어들인 돈도 온갖 방식으로 박탈당하기 때문
 -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조절, 세금정책, 사회보장 등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 실시
 -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재산권제도, 호적제도, 취업제도 등의 정책적인 제약요소를 제거
 - 가난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 보장

□ 『11·5』 기간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각

○ 『11·5』 건의안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방향 제시

- 재정정책 개혁: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 개선, 중앙과 성급 정부 간의 財政轉移支拂制度 개선, 증치세 제도 개선, 기업 세수제도 통일, 개인소득세 개선 강조
- 합리적인 소득분배: ‘按勞分配’의 개선, 생산요소 분배 발전, 소득 격차 완화, 취업 기회와 분배의 공정성 강화, 최저생활보장과 최저임금 기준 제고, 저소득층의 주거/의료/자녀의 취학문제 지원 강화, 공무원 임금제도와 임금관리제도 개선 강조
- 취업확대: 적극적인 취업확대 정책 실시, 노동밀집형 산업/서비스업 발전, 노동시장의 규범화, 취업에 대한 공공 기능 강화, 기업의 일자리 확대 장려, 취업 교육에 대한 우대정책 실시 강조
- 사회보장체계 개선: 도시근로자의 양로/의료/실업/산재/생육 보험제도 개선,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 農民工²³⁾들의 사회보장문제 해결, 부녀자와 아동 권익 보호, 사회복지사업 강화,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 실시 강조

(5)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효율성 제고

□ 중국의 에너지 및 자원 이용의 낭비 갈수록 심각

23) ‘民工’이라고도 함.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어 고용주에게 육체노동 제공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는 사회 최하층 계층.

- 2004년 기준 중국의 GDP 규모는 전 세계 GDP의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원 소모량은 12.1% 차지
 - 철강 28%, 산화알루미늄 25%, 담수 15%, 시멘트 50%의 자원을 소모
- 이러한 자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상 더욱 심각
 - 2004년 기준 전국의 1/3이 산성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7대수계 412곳의 수질조사지점 중 28%가 5급수 상태
- 향후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효율성 제고가 『11.5』 기간 주요 과제로 부각
 - 에너지 및 자원 이용효율성 제고에 7대 목표중 하나로 제기
 - 자원효율성 『10.5』 기간 대비 20% 제고
 - 에너지 및 자원 이용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정책들이 연이어 제시되고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국, 과학기술부, 재정부, 상무부, 국가통계국 등 6개부서 공동으로 <순환경제 시범사업(제1기) 진행 관련 통지(關於組織開展循環經濟試點第一批工作的通知)>를 제정하여 지방정부에 하달
 -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는 「中國可再生能源法」 공포, 2006년 1월1일부로 시행
 - 에너지절약중장기발전계획(能源中長期發展規劃綱要2004~2020)을 제정

□ 『11.5』 기간 중국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은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 요인으로 다가올 전망

○ 기회적 측면

- 에너지산업의 경우 절전제품, 대체에너지 제품 및 관련 설비산업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 할 전망
 - 2005년 3월분에 개최된 제10기 전인대 3차회의시 원자바오 총리는 에너지자원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강조, 에너지문제의 대안으로 에너지절약형 신기술 개발과 이용이 필요하다고 표명
- 환경산업의 경우 올림픽, 엑스포 등 공공 대형 프로젝트와 내륙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수요 증가 할 전망
 - 국무원 발표에 의하면 적정수준의 오폐수처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日처리량이 5800만 톤이 달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오폐수처리장 건설에 약 1200억 위안이 투입 필요

○ 위협적 측면

-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인한 투자 기업의 관리 비용 증가가 예상
- 또한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이용 효율 제고는 관련 자원의 원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원가 상승 압력 증가

부록. 2006년 중국 조세제도 변화

□ 3대 세제개혁 실시 예정

- 중국 세무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리우쥔(劉佐), 『11·5』 기간 ‘증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를 3대 세제 개혁 대상으로 언급
 - 증치세: 생산형 증치세에서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
 - 기업소득세: 내·외자 기업소득세법 병합
 - 개인소득세: 저소득자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개인소득세 부과 하한선 조정
- 중국 전체 세제 수입에서 35%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증치세와, 11%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소득세의 개혁은 중국경제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
- 증치세 개혁과 기업소득세 개혁은 시행 일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국정부의 최근 동향에 의하면 증치세 개혁은 2006년 중, 기업소득세 개혁은 2007년 중 실시될 전망

□ 증치세 개혁

- 1994년 세제개혁을 통해 실시된 생산형 증치세를 소비형 증치세로 개혁 추진
 - 생산형 증치세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중복과세가 발생 기업의 세수부담을 증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 특히 자본재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기술밀집형 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중국정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에 역행

- 또한 중복과세로 인한 상품의 원가증가는 국제시장에서 소비형 증치세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상품과의 경쟁력 상실
- 즉,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한 기술밀집형 산업 발전의 촉진과 수출경쟁력 강화가 증치세 개혁의 목적임

○ 당기 구매 자본재에 대한 증치세 공제 여부가 가장 큰 특징

- 생산형 증치세의 경우 납부세액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당기원재료 매입세액만을 공제
- 하지만 소비형 증치세의 경우 당기원자재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당기자본재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공제

생산형 증치세와 소비형 증치세의 계산방법

*납부세액=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 당기 매출세액=당기 매출액 □ 적용세율
- 당기 매입세액=당기 매입액 □ 적용세율

1.생산형 증치세

납부세액= 당기 매출세액 - 당기원자재 매입세액

2.소비형 증치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 당기원자재 매입세액 - 당기자본재 매입세액

○ 2004년 7월1일부터 東北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1년여 간 소비형 증치세 제도 실시함

- 설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선박제조업, 야금업, 자동차 제조업, 농산물 가공업, 군수, 하이테크 등 8개 업종에 한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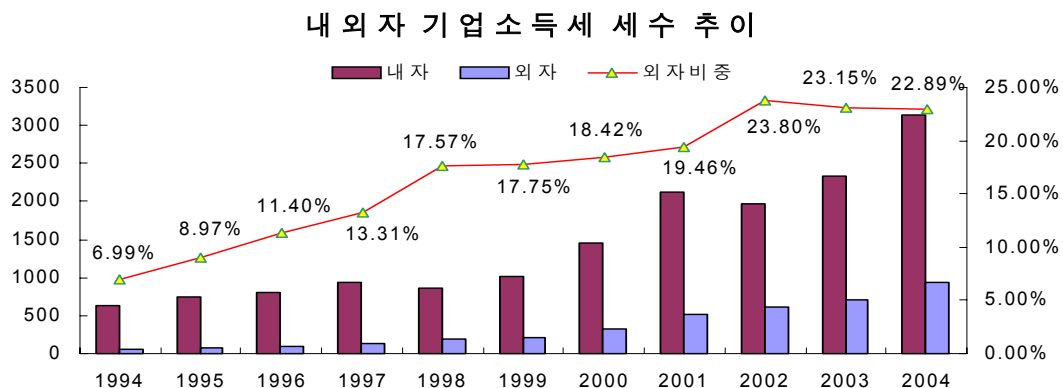
- 소비형 증치세 실시이후 중앙정부는 100억 위안, 동북3성의 지방 정부는 30억 위안의 세수 감소

○ 자본밀집형 산업이 최대 수혜

- 소비형 증치세를 실시할 경우 $15.54\% (=17\% / (1+17\%))$ 의 자본재 원가 절감 효과
- 자본재 원가 절감 효과는 자동차, 반도체 등 자본밀집형 산업이 가장 많은 이익을 볼 전망

□ 기업소득세 개혁

○ 기업소득세 단일화 논의 심화



자료원: 중국세무총국, China Observer Weekly 제73호에서 재인용

- 내자기업의 소득세율은 일반지역 33%, 연해·국경지역 24%, 특구지역 15% 등이며, 평균 23~25% 수준의 기업소득세 부담
- 반면, 외자기업의 평균 부담률은 11~14%로 내자기업에 비해 2배 정도 낮음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우대정책으로 연간 400억 위안(48억 달러)의 세금이 덜 걷히고 있음

○ 지역균형 발전 전략과 맞물려 『11·5』 기간 안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

- 외자기업에 대해 “경제특구-연해경제개발구-내륙 일반지역”으로 구분한 세수 우혜정책은 외자의 동부연해지역에 대한 집중을 가져온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기업소득세 단일화는 내륙지역에 집중된 내자 기업들에 대한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와 내륙지역 내자 기업들의 투자 확대 전망
- 또한,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15% 세율을 유지할 것으로, 외자의 서부지역 투자 증가 가능

○ 외자유치의 감소가 소득세 단일화의 가장 큰 제약 요소

- 2004년 외자기업의 총수출은 3386.06억 달러로 수출 공헌도가 63.4%에 달함
- 대외무역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외자유치의 감소로 인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
- 하지만 외자기업들의 투자동기가 생산비용 절감에서 내수시장 진출로 변화고 있어 급격한 감소는 없을 전망

○ 소득세 단일화로 인한 중국투자기업의 조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나 증치세 개혁으로 인한 조세부담 감소는 일정부분 상쇄 가능

- 기업소득세 단일화는 9%인상 명목환율 기준에서 24%선에서 이루어질 전망
- 하지만 증치세 개혁으로 인한 조세부담 감소는 기업소득세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분을 일정부분 상쇄할 전망

□ 개인소득세 개혁

○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

- 2005년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8차 회의에서 2006년 1월1일부로 급여소득자의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을 800위엔에서 1,600위엔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
- 1993년 기준 월수입 800위엔 이상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1% 내외 불과하였으나 2004년 이 비율은 60% 내외로 상승
- 또한, 같은 기간 주민 소비가격지수는 67% 상승하여 200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비지출은 1,143위엔으로 과세 기준 초과

○ 내수시장 확대 겨냥

- 『11·5』 기간 핵심 과제인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내수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
- 과세기준 인상으로 인한 감세 총액은 200억 위엔으로 개인소비를 촉진시키게 될 전망